불자 세상보기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과 '신정아 사건'

김대열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

4년 전 이 무렵 온 나라를 헤집어 놓았던 '신정아 사건' 이 그의 자서전 출간으로 다시 화젯거리다. 며칠 전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한 그녀의 언행을 보고, '꽃이 피는 의미' 도 '아름다움' 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술관계 일을 했는지? 참으로 애처로워 보였다. 스물 대여섯부터 미술관에서 근무한 그녀가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니 그야말로 꽃다운 청춘을 위선과 허위,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붓다는 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진실' 을 가르쳐주셨다. '염화미소(拈花微笑)' 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며, 꽃들이 다투어 피는 데는 '생명 존재' 의 진실한 노력이 숨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아름다움' 의 최고 상징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녀가 아직도 우리 앞에 서 스스로를 꽃과 같이 진실한 냥 말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견실하지 못하고 위선으로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교과서적인 이론을 빌자면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고 전시기획자(큐레이터)는 기획의 임무에 충실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여 년 전 중국의 개혁 개방이 한창이던 때, 당시 중국 미술계의 대가 이커란(李叶染)의 글 중에서 "요즘 젊은 작가들은 창작에는 20%정도만 할애하고 80%는 사교에 힘쓰고 있다" 라고 한 구절이 스쳐지나간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하겠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경종을 울려줄 대가도 없으며, 화단의 어른, 원로의 말을 듣는 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작가들이 작품의 창작 보다 대외활동에 더 치중해야 하는 세태가 되다보니, 글줄이나 쓰는 평론가나 전시기획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작가들이 몰려든다.

공자는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설 곳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사람이 될 것을 힘쓸 것이다.(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라고 논어, 이인편論語, 里仁篇)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고자, 자기 PR시대라고 외치면서 힘 있는 곳(?), 어디에든 사람들이 몰려다닌다.

이러한 세태가 결국은 신정아 같은 스타를 탄생시킨 것 아니겠는가?

미술품을 읽는 일, 작품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것은 아무리 학문적 소양이 깊어도 눈과 마음으로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연륜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그 젊고 짧은 경륜으로 그런 일을 맡고 있었으니 대단한 실력자였나 보다. 그러면서 그녀는 미술계뿐만 아니라 정관계의 유명인사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녀가 경험한 우리 미술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으며, 그가 가보지도 못했던 국내 대학 교수들의 면면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녀의 인기(?)가 절정이던 무렵 각 대학에서는 서로 앞 다투어 그에게 강의를 맡겼다.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전임으로 채용했다가 후에 고초를 격기도 했지만, 한 때는 다른 대학, 다른 작가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훌륭한 교수 모셨다고. '신정아사건' 이 한참 붉어졌을 때,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까지 펼친 대학교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팔방미인(八方美人)' 이 되었으며, 성취 욕구는 끝없이 부풀어 가짜학위까지 만들어 결국 화를 자초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4년 동안 그토록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아직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련하고 측은하다.

공자는 "허물이 있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허물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 (논어, 위영공편衛靈公篇) 라고 했다. 즉 허물을 고치면 허물이 없어지는데 고치지 아니하면 장차 그것을 고치는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당당한 모습으로 보아 그녀는 '허물을 고쳐' '재능이 온전한 사람' , 그래서 만물과 더불어 봄의 기운 속에 노니는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우리의 '재능을 온전히' 하고 '허물을 고쳐' 세상을 어지럽히는 허위와 위선을 저 멀리 보내야겠다. 그러면 그녀의 재능도 온전하고 진실해질 것이며, 세상은 따뜻한 봄기운으로 가득하지 않겠나?

꽃피고 향기로운 봄, 붓다가 꽃을 들어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 를 가르쳐준 의미를 깨우쳐야 할 때이다.

할머니의 천조각

사부대중 칼럼

김영훈
시나리오 작가

고교 시절, 시내에서 하숙을 하던 아버지가 방학을 맞아 버스로 한 시간 거리의 시골집으로 돌아간 날의 일이다. 때마침 농번기라 할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농사일과 집안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돕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던 아버지는 할머니께 효도하려고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시작했다. 나무를 해 오고 소여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안방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던 아버지는 장롱 밑에서 신문지로 꽁꽁 싸맨 주먹만한 천 조각 뭉치를 발견했다. 낡고 조각난 천들을 쓸모없는 물건이라 생각한 아버지는 신문지 째로 그것들을 아궁이에 던져 넣었다.

사건은 할머니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터졌다. 아궁이에서 검게 타다 만 천들을 발견한 할머니가 "차라리 나를 태우지 그랬냐! 나를 태우지 그랬어!" 라고 하시며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반가움이 무색할 정도로 크게 화를 내신 것이다.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할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어 무척 당황했다고 아버진 술회했다. 그 후로도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이 일화는 내게 퍽 인상적이었다. 당신의 인자했던 성정에 그런 모습도 있었나 하는 의아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란 얼마나 상대적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옷감이 귀한 시절, 차곡차곡 모아온 그 천 조각들이 할머니에겐 너무도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 받을 때가 있다. 1위부터 순위를 매겨 본다면 반론의 여지없이 가족과 건강, 꿈, 친구와 연인, 돈 같은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겨본 순위표엔 스스로 생각해도 상당히 의외인 것들도 랭크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용돈을 모아 산 만화 '유유백서' 초판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양을 쫓는 모험' 153페이지, 지금은 절판돼버린 영화 DVD들… 미국 근대작가 존 G. 폴링은 자신의 유작에서 '소중한 것은 언제나 무거웠다' 라고 썼다. 그의 말대로라면 소중한 것들에 대한 내 목록의 절반 이상은 너무 가볍거나 상식선에서는 무게를 잴 수 없는 것들뿐인 것 같다.

길을 가는 백 명의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 그들의 목록에서도 몇 개쯤은 이와 같이 남들이 보기엔 코웃음 쳐지는 것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평화와 박애 같은 관념에서부터 멸종 직전의 새끼 바다사자, 최신 맥북 같은 사소한 물건까지. 개개인들에게 소중함은 이만큼이나 상대적이다.

그런데 근래 전해지는 뉴스에선 누가 보아도 소중한 것마저 할머니의 천 조각 취급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듯하다. 46명의 장병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1년이 지났다. 목숨에 값을 매길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부와 유가족간의 합의를 통해 사망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얼마 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추모제도 치러졌다. 그러나 생존 장병 수색에 뛰어들었던 금양호 9명의 선원들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도 아직까지 정부와 사회의 어떤 보상과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몇 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온 비정규직 문제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할머니의 천 조각이 된 지 오래다. 해고된 쌍용 자동차 노조 조합원 14명이 사측과 정부,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병들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와 인디 음악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의 죽음 또한 무관심으로 무장한 사회 전체의 직무유기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불성(佛性)을 지닌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타인과 내가 둘이 아니듯 내가 상대에게 행하는 것은 곧 나에게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당연시 되고 배려가 귀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요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이웃의 사정에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풍조가 계속된다면 이와 같은 고약한 상대성 원리로 인해 나의 소중한 무언가도 누군가에게 할머니의 천 조각 취급을 받아 언제 아궁이 속에 던져질 지 모를 일이다.

社說

연등 하나 켤 때 이웃돕기도 한번씩

조계종 종무원조합 여성부가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을 통해 작지만 큰 선행을 펼쳤다는 소식은 훈훈하기만 하다. 그들은 내 가족뿐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땀한땀 뜨개질을 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33만원의 성금도 성북구에 위치한 미혼모시설 '달빛둥지' 에 전달키로 했다.

4월 23~24일 열린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구미 대둔사 진오 스님과 대구 상락선원 혜문 스님은 이주노동자 토안을 돕기 위해 108km를 뛰었다. 두 스님은 1km를 달릴 때마다 후원자들을 통해 100원씩 적립해 모인 후원금을 토안에게 전달한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빈자일등(貧者一燈)를 되새기게 된다. 빈자일등은 부처님에 바치는 가난한 사람의 정성어린 한 등이 부자의 1만 등보다 낫다는 내용이다. 난타 여인의 스토리를 되새기며 불자들은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에도 등을 밝혀왔다. 올해에도 불자들은 전국 사찰에 연등을 켤 것이다. 연고 있는 여러 사찰에 연등을 켜는 불자들도 상당할 것이다.

올해는 부처님 전에 연등 하나 켤 때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부도 함께 하면 어떨까? 1배 100원, 108배를 통해 모아진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좋겠다.

불기 2555년, 올해의 봉축표어는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만큼은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씀씀이를 수행 삼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자.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자.

전국의 밤하늘을 환히 밝히고 있는 연등처럼 우리의 가슴, 이웃의 가슴마다 나눔과 실천의 불씨를 피우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주민자치센터서 선교무용 금지해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일부에서 선교무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확인된 곳만 강동구 성내2동과 강동구민회관 등 2곳, 동작구 노량진동과 중랑구 상봉1동 주민자치센터는 동호회 활동 명목으로 선교무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고 한다. 곳에 따라서는 한국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찬송가를 활용한 무용 교습을 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주민자치센터인지 교회 강당인지 구분이 안간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교무용 프로그램 운영과 장소 제공이)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교무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선교무용 동호회에 공간만 빌려주는 것뿐이라는 해명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종교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고운 시선을 보내기 어렵다.

불교계가 나서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선교무용을 금지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지침까지 만든 마당에 왜 담당공무원이 "몰랐다"고 해명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교무용 프로그램을 개설케 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선교무용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보다 불교계의 도심포교 부진과 실패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